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웹 기반 고용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eb-based employment model for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조선구* 노영**

목 차

- | | |
|-----------------------|-----------------------|
| I. 서론 | IV. 국내·외 장애인 고용 모형 사례 |
| II.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 | V. 웹 기반의 장애인 고용모형 |
| III.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 VI. 결론 |

Key Words : 정보소외계층, 장애인고용, 원격근무센터(telework), 원격교육센터(distant education center)

Abstract

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y are rapidly diffused throughout the world. A new paradigm,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is a product of the tremendous technological changes driving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the computer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reas related with web-based telework?distant education, the disabled expect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refore nowadays, the disabled effort to adapt to the new information era by web-based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developmental framework of web-based telework · distant education center to vitalize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 나사렛대학교 경영정보학전공 교수, sgcho@kornu.ac.kr, (041)570-7944

** 나사렛대학교 경영정보학전공 교수, ynoh@kornu.ac.kr, (041)570-7973

본 논문은 2004년도 나사렛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논문임

I. 서론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기술은 이미 우리생활 깊숙이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을 잘 활용하는 계층(정보선도계층)들은 정보기술의 혜택으로 보다 풍요롭고 다양한 생활의 질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정보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정보소외계층)은 선도계층과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말미암아 더욱 사회에서 격리되는 사회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크게는 국가의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이라 불리우는 주부, 노인, 저소득층과 더불어 장애인문제는 대단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하다. 특히 이동성에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장애인의 복지정책의 핵심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 장애인 고용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웹 기반(web-based) 고용 모형의 개발이라는 인프라구축을 언급하고자하며, 그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대한 문제해결이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웹은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의 제약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웹 기반의 원격근무센터(telework center)는 고품질의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로 판단된다.

둘째로 일단 일자리를 갖은 장애인의 고용유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다. 장애인의 고용이 단기간 고용에 머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

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기동성과 비장애인과의 업무협조 및 업무능률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정도가 심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웹 기반의 원격근무센터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도 웹이 갖는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판단된다.

셋째, 장애인의 고용은 노동력의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장애인도 업무능력의 경쟁 정도에 따라 노동시장의 대열에 접근하게 된다. 이때에도 장애인이 갖는 제약은 첨단 정보수집에 어려움과 새로운 기술의 접근을 막는 새로운 장애요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인 업무능력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웹 기반 원격근무센터는 원격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판단된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장애인 고용문제의 공통점은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과 고용의 유지에 대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는 웹 기반의 원격근무센터의 활성화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럽게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이동성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에게 IT는 장애인 고용분야에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 중의 하나는 장애인 원격근무센터에 있을 것이다.

2003년 추계 경영정보학회에서는 시각장애사용자의 멀티미디어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등, e-business와 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도 인터넷과 정보

통신으로 대변되는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중증장애인 고용모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한다.

II.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의미의 재평가

지금까지의 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라는 의미에서 도움을 주어야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스스로 재활할 수 없는 장애인은 도움의 대상이 되어야 당연하다. 그러나 도움에 대한 수혜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에서 장애인에게 재활과 복지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자기결정권, 자기 의존권, 정치적/경제적 세력화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은 변화되고 있다(김종인, 2001).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과 고용의 개념 문제까지 파급되고 있다. 즉, 장애인 직업재활은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독립적 혹은 생산적 객체로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대한의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은 노동력의 사회 환원이고, 이에 대한 독립 생활자로서의 사회 참여는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다. 결국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고용이라는 전제에서 임금부분의 공정한 노동 대가성을 인정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초 복지 차원의 소득 보조가 성립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는 노동의 한계성 문제가 언급될 수 있으나, 이는 정부 차

원의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보는 각도는 분리되어야 하고, 상호 보완적인 제도적 요건이 요구된다.

2.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의 변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적극 독려되어야 한다. 즉 교육을 받는 사람과 교육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다 심화된 교육이다. 교육을 하는 사람은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등이 이에 속하는데 지속적인 재교육은 물론 현실에 맞는 교육(예를 들면 IT관련 교육 등)에 충분한 투자와 시간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단순 취업이 아닌 보다 숙련된 고용시장에의 장애인 진출을 위해 심화된 장애인 교육 내용과 방법이 요구된다. 다행스럽게도 IT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좁히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 내용도 그 영역의 구분을 없애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내용의 개발은 꾸준히 전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실질적 효율성 확보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고용율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의무고용율은 여타의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2%). 이처럼 다른 유럽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의무고용율(이탈리아 15%, 프랑스 6% 등)의 갑작스런 확대 실시보다는 철저한 직업재활프로그램과 점

진적인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고용정책의 실질적인 효율성확보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준비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충분한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전문학교, 고용개발원,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하드웨어 속에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즉 장애인의 실질적 독립생활 그리고 사회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장애인 고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하드웨어의 횡적 네트워크(network)의 구축과 역할의 재정립 그리고 이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장애인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 고용 현황에서 본 문제점

우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아래 <표 1>에서와 같다.

즉, 장애인구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의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한 각종 질환과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이 전체의 89.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중에서 재가 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구성비를 보면 재가 장애인이 전체의 96.5%이고, 시설장애인은 전체의 3.5%에 불과하여, 장애인의 대부분은 재가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 정책은 재가 장애인이 중심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표 2>는 15세 이상의 장애인구에 대한 취업률과 실업률에 대한 조사이다.

<표 2>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장애인 중 실업자는 180.9천명으로, 실업률은 28.4%로서 전체 실업률(2000년 6월 4.2%)에 비해 6.8배이다. 또한 가장 왕성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15세~29세까지의 연령에서 각각 54.98%, 43.29%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5세~29세까지의 연령에 대한 고용정책이 요구된다.

<표 1> 장애인구 변화 (단위 : 천명)

연 도	1985	1990	1995	2000
장애인수	915	956	1,053	1,449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1985-2000)보건복지부(2001)

<표 2> 2000년 장애인 경제 활동 실태조사(15세 이상의 인구) (단위 : %)

취업자	실업자	소계
71.6	28.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2000)보건복지부 (2001)

〈표 3〉 취업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단위 : %)

구분	입법공무원관리자	전문가	기술봉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어업	기능원	기계조작조립원	단순노무직
비율	0.3	2.4	3.6	4.8	21.0	25.6	11.7	6.5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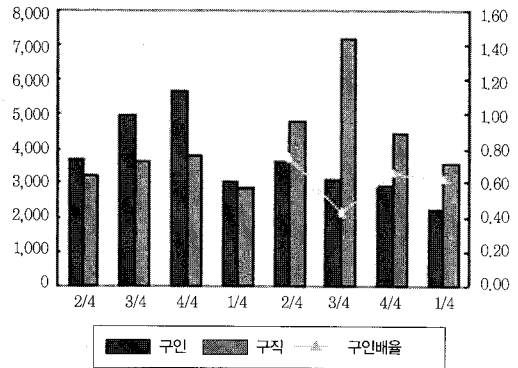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조사(2003) 보건복지부 (2001)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21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2000년 2/4분기 233.1만원)의 46.4%에 불과하다. 〈표 3〉에 따르면 취업 장애인의 취업분야는 주로 농업(25.6%), 단순노무직(23.4%), 서비스업(21.0%)에 편중되어 있다. 취업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79.2만원으로 상용종업원 월 평균 임금 183.7만원의 43.1%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다 고소득이 가능한 지적 분야의 고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2. 장애인 고용 동향에서 본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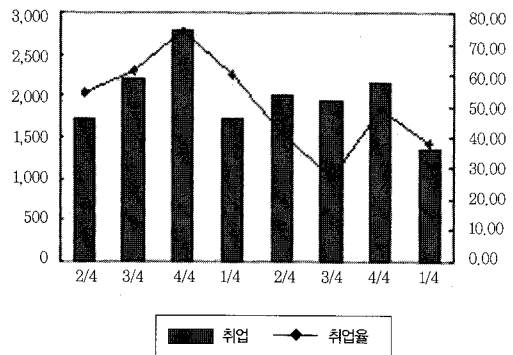
2003년1/4분기 장애인 구직자수는3,561명으로, 성별로 보면 남성은 2,573명(72.25%), 여성은 988명(27.75%)이다. 2003년1/4분기 구인배율은0.62배이고, 성별로 남성은 0.18배, 여성은 0.34배이다. 같은 시기의 취업자수는1,351명으로 남성은 935명(69.21%), 여성은 416명(30.8%)이다. 2003년 1/4분기 취업률은 37.94%, 남성은 36.34%, 여성은 42.11%이다(〈그림1〉과 〈그림2〉참조).

〈그림 1〉 분기별 구인·구직 및 취업추이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조사(2003)

〈그림 2〉 취업 및 취업률 추이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조사(2003)

우선 직종별로 고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인은 단순노무직(41.98%), 기술·기능관련직(41.25%), 경영·금융·무역·사무관련직(8.31%), 영업·판매 관리직(5.86%)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영·금융·무역·사무관련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종에서는 감소추세이다. 취업률은 단순노무직(54.92%), 기술·기능관련직(33.32%), 경영·금융·무역·사무관련직(5.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사회복지·종교관련직, 농림어업직은 다소 증가하였다(〈그림3〉과 〈그림4〉참조).

규모면에서도 구인은 10-29인(25.67%), 30-99인(23.49%), 5인 미만(19.49%), 5-9인(13.45%)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구인분포는 9.72%이다. 규모별 취업분포를 살펴보면 10-29인(31.01%), 30-99인(30.72%), 5-9인(10.81%), 5인 미만(8.88%) 순으로 나타나며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분포는 8.88%로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IV. 국내·외 장애인 고용 모형 사례

국내외의 장애인 고용 모형은 직업재활의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4〉는 직업종합센터(일본), 하이텔베르그센터(독일), 하이럼G엔드류센터(미국), 장애인직업재활센터(한국)에서 시행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특징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외국의 장애인 고용은 교육, 의료, 사회, 생활 등과 매우 밀접하게 상호연계하고 있으며, 지역 내의 사업체와의 다각적인 접촉 하에 인력을 양

성하고, 사업체에 배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지역마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이 있어 지역중심의 서비스실시가 활발하다.

V. 웹 기반의 장애인 고용모형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업능력 회복과 직업적 신분보장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즉,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로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며, 또한 산업현장의 신뢰받는 인력으로 사회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동권 보장이란 제약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과제로 오늘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촉진정책의 하나로 웹 기반 원격근무와 원격 교육을 통한 장애인 고용 모형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웹 기반 원격근무는 이동권과 접근성에 있어서 제약을 지니며,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영역을 확대해줌으로써 진정한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격교육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눈부신 성장에 따른 장애인 IT인력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훈련의 매우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어 웹 기반 원격근무를 통한 장애인 직업재활을 촉진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표 4〉 각국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특징 비교

구분	직업종합센터 (일본)	하이텔베르그센터 (독일)	하이렙G.엔드류센터 (미국)	장애인직업재활 센터 (한국)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 관리/지원 •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 • 직업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 평가 • 직업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응훈련 • 지원고용사업 • 각종 조사 및 평가
유시기관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센터 1개소 • 지역마다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마다 존재 (전국 2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마다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개 장애인복지관 • 4개 전문 센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 직업강습, 준비훈련 대상 • 평가 및 보조도구 개발을위한 대상 (뇌성마비, 정신지체, 시각장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노동사무소, 산재 및 실업 보험 담당기관 등에서 의뢰된 장애인 • 중도장애인의 비율이 높으며, 성인장애인임 • 장애유형은 정신지체를 제외한 모든 장애인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장애유형을 대상 • 주정부 직업재활청과 15개사무소, 재향군인회 등 장애인단체에서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중증장애인 대상 • 시설입소장애인 • 지원고용장애인 • 기타, 사업주, 장애인
주요사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직업재활 전반 -심리특성 -보조기구개발 • 지역 센터 지원 • 프로그램 개발차원에서 상담, 강습 • 준비훈련 부분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탐색 • 직업훈련 • 보조기구개발 • 재활정보자료 개발 보급 • 정신장애인 대상 심리 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 평가 • 상담 • 치료(물리, 작업,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 직업재활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생산물 판매 촉진 지원 • 직업재활 전문인력 교육
기능상의 특성 (중앙 VS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능수행 -정보, 연구, 연수 -지역센터지도관리 • 직접 서비스일부 수행 -직업강습, 직업준비훈련 -상담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기반으로함 - 하이텔 베르그시 • 직접서비스와 직업재활정보보급 등 지원 서비스일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기반(주) • 직접서비스가 대부분 -상담평가 -훈련 -직업배치 -사후지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개지역의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센터) • 4개 센터에서 전문적 직업평가기능 수행

자료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1998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중심의 웹 기반 장애인 고용모형 개발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단, 전제조건으로 지역중심의 원격근무/교육센터는 기존의 한국 장애인촉진공단과 고용개발원, 직업전문학교 5개소,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24개소, 장애인직업 훈련시설 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센터 35개소, 장애인전문직업평가센터 4개소,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러한 유관단체와 네트워킹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웹 기반 장애인 고용모형이다.

첫째, 중증장애인이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중심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웹 기반 중증장애인 원격근무센터 구축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장애인의 업무능력의 향상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경쟁력 확보로 직결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보다 심화된 교육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동권 보장이 어려운 지역 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웹 기반 중증장애인 원격교육센터 구축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원격근무센터와 원격교육에 이르는 일련의 직업재활촉진프로그램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촉진을 위한 고용모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웹 기반 장애인 원격근무센터 모형

1) 웹 기반 장애인 근무센터의 필요성

장애인 고용정책이 실질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사회,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완벽한 상호연계가 전제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의 사업체간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정책의 실무센터로서의 장애인 원격근무센터는 이러한 작업의 핵심에서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전체 장애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가 장애인의 경우, 이동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웹 기반 근무형태가 요구되어지는 현실에서, 웹 기반 원격 근무 센터는 중증장애인에게 매우 필요한 근무형태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는 “장애인 중심기업”으로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나 스웨덴의 삼할(Samhall)은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의 모형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정부의 보조와 장애인의 우대정책만이 이들 기업을 유지시키고 있다면, 완벽한 장애인 고용형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장애인 중심기업의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우선구매품목의 생산 그리고 낮은 보수(61만원~111만원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존립기반이 약하고 고용 장려금 이외에는 별도의 지원도 부족한 상태이다. 2004년부터 “장애인 중심기업 활성화 추진단”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내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선구매, 입찰우대, 금융대출특례, 시설투자 세액공제, 지원금 비과세 등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소장섭, 2003).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장애인 고용에 직접적인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다. 중요한건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회사나 일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근무형태이고 업무내용이다.

따라서 웹 기반의 원격근무센터는 이러한 장애인 근무형태의 새로운 시작이다.

2) 웹 기반 장애인 원격근무센터의 효과

웹 기반 원격근무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그리고 경제적 메리트는 매우 크다. 둘째, 원격근무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고급인력 혹은 유용한 인력의 수급이 용이하며,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재택근무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동성 제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일상생활공간 속에서의 근무는 오히려 장애인에게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주변의 충분한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

3) 웹 기반 장애인 원격근무센터의 문제점

장애인의 원격 근무센터가 활성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혹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격근무를 통한 장애인고용도 의무고용제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웹 기반의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기와 같은 근무환경조성에 경제적 부담이다. 셋째, 기업은 원격근무에 적합한 업무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평가 혹은 측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웹 기반의 업무는 일반 단순 업무에서 고부가가치의 업무로 변환을 의미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4) 지역중심의 원격근무센터 모형

원격근무센터는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장애인 고용센터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 장애인시설은 직

업재활 프로그램이 다소 강화되긴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향후 지역별 직업재활과 고용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김종인, 2001). 이처럼 장애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웹 기반으로 연결시킨 장애인 원격근무센터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치하는 직업전문학교(권역별 본부)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지역 지부)의 웹 기반 네트워크 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장애인은 지역 지부인 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본인의 원격근무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웹 기반 장애인 원격근무센터의 핵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직업전문학교의 업무는 장애인의 교육을 중심으로 수행해 왔기에 원격근무센터의 역할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권역별로 장애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별 장애인 원격근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도 연구의 대상이다. 장애인 원격근무센터의 기본 모형은 <그림 7>과 같다.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원격근무센터의 핵심이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생활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을 근무지로하고 자기의 집에서 웹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는 복지시설을 통하여 고용된 업체의 업무를 담당하기도하고, 업체와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행한다. 이때 복지시설은 장애인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편의와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의 5개 권역별로 산재해 있는 직업전문학교는 장애인 원격근무의 네트워크를 담당한다. 직업전문학교는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격근무지를 관리하고, 지역의 고용정보를 권역별로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직업전문학교는 장애인의 고용정보 혹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재교육의 정보를 고용개발원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고용개발원으로 하여금 고용에 따른 재교육 과정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원격근무는 이동성의 제약을 갖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재택근무 등의 장애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적합한 근무형태이다. 이러한 원격근무는 원격교육과 서로 맞물려 장애인의 교육 및 재교육 그리고 고용과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웹 기반 장애인 원격근무센터의 역할 분담

[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원격근무센터의 지역지부로 하며, 지역 지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장애인의 원격근무를 위한 맞춤형형태 제공
- ② 장애인의 원격근무의 업무조정
- ③ 장애인 근무용 컴퓨터 보조기 교육과 보급
- ④ 장애인 정보화의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 ⑤ 장애인복지시설의 원격근무용 기자재
- ③ 고용개발원에 원격근무에 따른 재교육 정보 제공
- ④ 장애인 컴퓨터 보조기 보급

⑤ 지역별 장애인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고용개발원]은 원격근무센터의 중앙원격근무센터로 하며, 총본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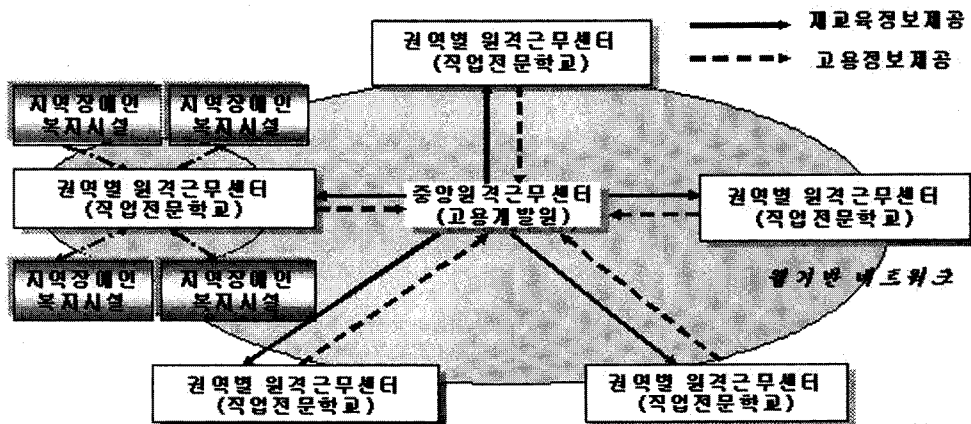
- ① 원격근무센터의 법적 제도적 운영 관리
- ② 권역의 고용정보 공유
- ③ 원격근무에 따른 재교육 정보 제공
- ④ 장애인 컴퓨터 보조기 개발

2. 웹 기반 장애인 원격교육센터 모형

1)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고용기간이 짧음으로 인한 장애인의 업무경쟁력의 약화이다. 즉, 짧은 고용기간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숙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단순 업무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직종의 변경을 가져와 새로운 업무의 적응에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노동력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지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

〈그림 7〉 웹 기반 원격근무센터 모형



는 교육이 절실하다.

둘째, 많은 장애인이 현실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정보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사용방법을 몰라서(33.9%)”이고, 그 다음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29.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가 없어서(5.1%)” 라든지 “통신요금이 부담스러워서(1.1%)”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Chung, 2002).

- ①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 ②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 등 관계법령의 정비
- ③ 지역사회 정보센터의 건립
- ④ pc 보유대수의 확대
- ⑤ 장애인 통신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
- ⑥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IT learning program) 보급사업
- ⑦ 장애인 정보화 교육센터(IT learning centers for the disabled)조성 사업
- ⑧ 노인과 장애 층을 위한 online contents 조성지원사업
- ⑨ 장애인들의 IT활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이처럼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고려되고 있으나,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도 자립생활이 안 되는 장애인들에게는 PC와 주변기기 및 보조기기의 구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써 장애인들을 위한 생산적 복지의 기반을 공공이 하기 위한 pc와 주변기기 및 필수적인 보조기 구입지원책이 절실하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심화된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욕구의 충족과 장애인 고용으로 연결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T관련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정보화 교육에 포함시킨 위탁교육이나 교육훈련생제도 등이 필요하다(강종건, 2002).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동성의 제약 혹은 정보접근성의 제약을 갖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이 웹 기반 원격교육센터의 운영으로 판단된다.

- 2) 장애인 의무고용보다 중요한 고용유지를 위한 교육

장애인 의무고용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장애인 실업률이 현재 28.4%에서 18%로 낮아질 것이다. 의무고용의 확대적용만큼 중요한 것은 고의 유지이다. 우선 국가인권위가 대구대와 공동으로 연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22개 업체의 인사규정에 대한 조사”에서 79.1%가 신체기능 및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해고나 직권면직 혹은 퇴직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시 장애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5.2%). 그리고 퇴직시 비장애인과 정년이 다르다(11.3%)로 장애인의 고용유지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고용유지의 문제와 같이 해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 그리고 자기 개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지만, 중증장

애인이나 재가 장애인의 경우는 교육이나 훈련의 혜택에서 항상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재택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웹 기반 원격교육은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 장애인의 재교육과정은 고용의 유지와 정보의 습득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3) 웹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성 극복

웹(Web)이란 World Wide Web의 약어로서, www 혹은 3w라고 하여 동일의미로 사용된다. 웹의 특징은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문서이며,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규합하고자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상의 정보는 문자뿐 만 아니라 그림, 그래픽, 소리나 영상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총체이다. 따라서 웹이란 모든 형태의 정보를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에 따라 매우 손쉽게 정보를 검색 혹은 제작하여 주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웹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의 확산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산업구조는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닷컴 기업뿐 만 아니라, 웹을 활용하는 새로운 산업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 웹 마스터 등 수많은 직업들의 창출에서부터 기존의 기업들조차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트제작을 통하여 기업홍보 및 판매 등에 힘을 들이고 있다. 웹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의 정보교환을 베이스로 한다. 장애인들의 고용 상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인 이동성의 제약은 웹을 통한 경우 그리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적기능에 손상이 없는 장애 등은 직무수행 상 제약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장

애인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 올수도 있다(노영, 2002).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이 웹을 이용한 정보관련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원격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4) 웹을 통한 원격교육

원격교육은 교수자나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통신 매체(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 등)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의 형태로, 가상교육, 네트워크교육, 인터넷교육, 웹 기반 교육 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격교육을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공간적 시간적 제한의 극복,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다원적 매체의 활용, 학습주동의 개별학습 등과 같은 사이버교육의 특성을 갖춤과 동시에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쌍방향적 교육형태로 정의 하고 있다(Sherry, 1995). 결국, 웹을 통한 원격교육이란 웹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 떨어져있는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정해용외1인, 2002).

장애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의 정도 혹은 교육의 내용도 현저하게 다르다. 따라서 원격교육을 장애자 교육에 적용할 경우, 장애자를 위한 맞춤형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를 최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의 복귀를 위한 장애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기결정의 능력이 없거나 의사소통의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격교육을 통한 맞춤형교육은 대단히 유용한 교육일 수 있다. 맞춤형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현장의 경험을 가진 직원 및 전문직간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

다. 그러나 교육전문가의 공급은 당연히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원격교육을 통하여 교육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지역중심의 원격교육 센터 운영

원격교육센터는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크게는 지역중심의 원격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는 전술한바와 같이 한국장애인추진공단과 고용개발원, 직업전문학교,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장애인전문직업평가센터, 그리고 장애인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러한 유관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웹 기반 장애인 원격교육모형이다. 지역 중심의 원격교육센터는 5개 권역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업전문학교의 업무는 장애인의 오프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수행해 왔기에 원격교육센터의 역할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권역별로 장애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별 원격교육

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장애인 원격교육센터의 기본 모형은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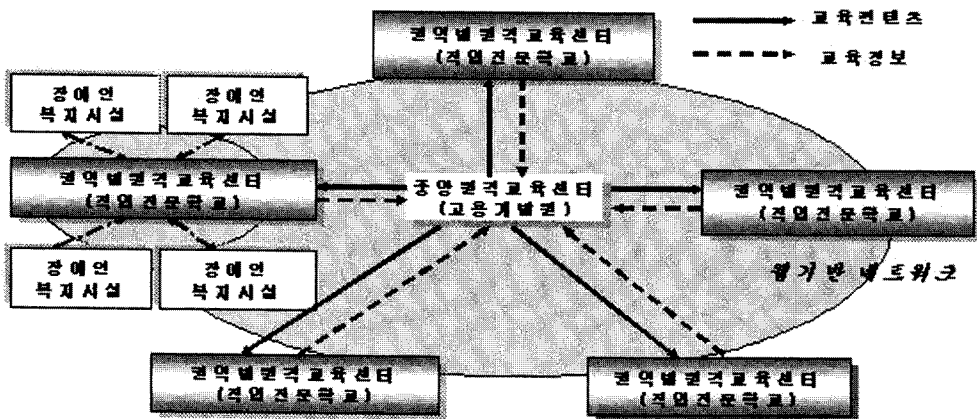
즉, 고용개발원에 중앙 원격교육센터를 둔다. 중앙 원격교육센터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직업전문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고용개발원은 급격히 발전하는 IT기술을 도입하여 장애인을 위한 각종의 보조기 등을 개발하고 이를 각 권역의 직업전문학교(권역 본부)를 통하여 일선의 장애인 복지센터에 보급함으로써 원격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고용개발원은 장애인을 위한 원격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5개 권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직업전문학교를 웹 기반 네트워크로 연결시킨다.

6) 웹 기반 장애인 원격교육센터의 역할 분담

웹 기반 장애인 원격교육센터의 중앙본부에 해당하는 [고용개발원의 원격교육을 위한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 ① 장애인용 콘텐츠 개발
- ② 직업전문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보급

<그림 8> 웹 기반 원격교육 센터 모형



- ③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기 개발 및 보급
- ④ 장애인 정보화 제도 정비 및 정책 연구
- ⑤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정보화 콘텐츠의 데이터 수집
- ⑥ 직업전문학교의 원격교육용 기자재 관리
- ⑦ 원격교육 전문가 교육 및 재교육 실시

다음은 직업전문학교는 전국의 5개 권역별 장애인 원격교육을 직접 담당한다. 직업전문학교는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웹 기반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복지시설의 원격교육을 관리하며, 고용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애인정보화용 콘텐츠를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 또한 직업전문학교는 원격교육이 갖는 장애인별 맞춤교육의 핵심에 있으며, 장애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개발원에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전문학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장애인용 콘텐츠의 장애인별 맞춤교육 작업
- ②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격교육 담당
- ③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기 교육과 보급
- ④ 장애인 정보화의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 ⑤ 장애인복지시설의 원격교육용 기자재 관리
- ⑥ 장애인 원격근무의 재교육

3. 웹 기반 장애인 고용 모형

장애인을 고용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우선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재택근무 등과 같은 근무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로 고용이란 대상자의 업무능력을 전제로 고용되니

만큼 대상자장애인에게 고용을 위한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장애인 고용은 주로 단순 업무 등과 같은 업종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IT의 발전과 함께 보다 전문적인 직종의 근무확대가 가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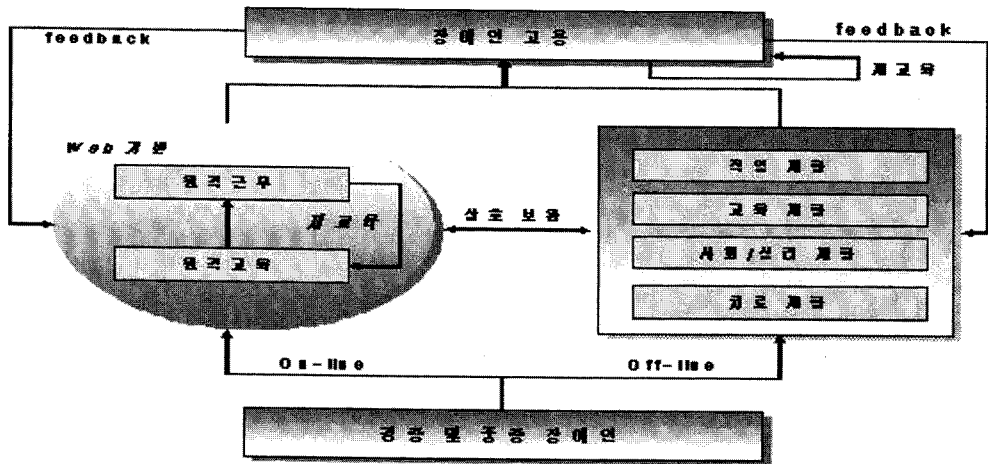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장애인 고용 모형은 아래 <그림 9>과 같다. <그림 9>의 장애인 고용 모형은 경증 및 중증장애인, 즉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고용모형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On-line 코스와 Off-line 코스의 과정을 거쳐 고용으로 연결된다. On-line 코스와 Off-line 코스의 과정은 서로 독립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되는데 기존의 off-line과정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가능한 한 on-line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진다.

On-line 과정은 원격교육과 원격근무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IT와 같은 정보성이 강한 근무를 위하여 재교육과정을 원격교육과 원격근무에서 진행된다. 원격교육과 원격근무는 이동성의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주된 대상이 되는데 주로 재택근무 및 재택교육의 형태로 웹 기반에서 진행된다.

Off-line 과정은 기존의 고용촉진 정책인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 치료재활의 Off-line 고용촉진 모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직업재활, 교육재활은 상당부분 On-line과정으로 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line상의 상호보완작업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은 정보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꾸준한 재교육과정이 필수적이다. 결국, 새로운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은 원격근무센터와 원격교육센터로 이어지는 web기반 On-line 모형과의 기존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보완되어 장애인 고용촉진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장애인 고용 모형



VI. 결 론

장애인에게 있어서 고용이란 국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어려운 시기에 맞물려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동성과 접근성의 제약을 갖고 생활하는 중증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더 더욱 그 정도가 심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웹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아말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한 가지 희망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근래에 e-business, 창업 등 장애인 재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형태의 고용형태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장애인 고용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은 이동성과 접근성의 한계를 갖고 있다. 새로운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에서 첫째는 장애인 고용문제는 첨단 기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재택근무나 사이버근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두고 장애인의 이동성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

다. 이를 web기반 원격근무센터이라 칭하고, web기반 원격근무센터 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장애인의 원격근무센터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기간이나 장애인의 업무능력 향상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업무능력의 고부가가치화 추구에 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재가 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형태의 교육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web기반 원격교육센터이라 칭하고, web기반 원격교육센터 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장애인의 고용 모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즉, 장애인 고용은 웹 기반의 원격근무센터의 활성화에 있다. 원격근무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성제약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장애인을 위한 첨단 교육을 실시하며, 고용된 장애인의 재교육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투여하는 형태의 새로운 장애인고용 패러다임 한가운데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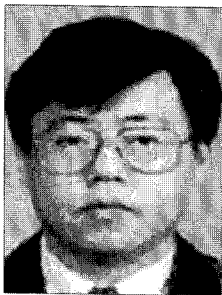
참고문헌

1. 김선규, 장애인고용정책 세미나,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3
2. 김종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2001
3. 김종우,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토론, 서울특별시, 2001
4. 강종건, e-Biz와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 방안, 제4회 e-Biz workshop, 2002
5. 노 영, 우리나라의 e-Biz환경과 직업재활의 미래, 제4회 e-Biz workshop, 2002
6. 문영모,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과 정책방향, 서울특별시, 2001
7. 박성제, 시각장애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정보접근에 대한 효율적 인터페이스 구현, 경영정보학회, 2003
8. 보건복지부, 2003 장애인복지사업 자료, 2003
9.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안내. 2003
10. 변경희,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업적 장애기준의 도입,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3
11. 변용찬, 생산적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3
12. 소장섭, 장애인 고용의 새 모델 “장애인 중심기업”, 2003
13. 이계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토론, 서울특별시, 2001
14. 이성규, 장애인고용 정책의 발전적 변화,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3
15. 이영숙, 장애인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 방안, 1998
16. 이태우,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0
17. 조선규외 2인, 장애인을 위한 웹 기반 원격교육센터 모형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음성 점자 센터, 2003
18. 장창업외 2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1998
19. 정창업외 3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비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2
20. 정해용외 1인, 사이버교육 효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2.
21. 최영광, 장애인 e-Bi현황과 주요사례, 제4회 e-Biz workshop, 2002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자료, 보건복지부, 2003
23. 황수경,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003
24. 황규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 서울특별시, 2001
25. Sherry, Issues in distance learning, 1995
26. Appu Kttan & Luarence Peters, From Digital Divede to Digital Opportunity, 2003
27. Stewart Marshall, Wallace Tsyol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Transforming Regional Economies and Communities with Information Technology, 2003
28. UCLA Center for Communication Policy, Surveying the Digital Future, 2003

29. Amanda Lenhart, The Ever-Shifting Internet Population: A New Look at internet Access and the Digital Divide, 2003
30. The Children's Partnership, Online Cotents for Low-Income and Underserved Americans,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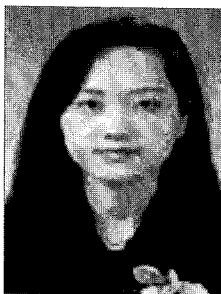
31. Rupert Dowing, Bridging Aboriginal Digital and Learning Divides, 2002
32. Morrino Institute, From Access to Outcomes: Rising the Aspirations for Technology Instiatives in Low-Income Communities, 2001

저자약력



조선구 (Cho Sun Gu)

- 1989년 (日本)츠쿠바대학대학원 경영정책과학연구과 졸(경제학석사)
- 2000년 국민대학교 정보관리학과 졸(정보관리학박사)
- 1989~1992 (日本)후지츠social science laboratory 근무
- 1992~1996 경북대학 교수
- 1997~현재 나사렛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 EC전략, 디지털정책, 정보격차
- e-mail : sgcho@kornu.ac.kr



노영 (Noh Young)

- 2000년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졸(경영학박사 MIS전공)
- 2000~2001 천안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2001~현재 나사렛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e-business기반기술, e-learning, 정보격차
- e-mail : ynoh@kornu.ac.kr